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윤석열 대통령, 국민과의 허니문이 중요하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우리나라는 5년 단임 대통령제다. 따라서 4년 중임제 미국과는 국정 운영이 다르다. 미국은 대부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는 관계로 첫 4년은 중장기 국정 계획을 추진하고, 다음 4년 임기는 성공적 관리에 중심을 둔다. 반면 5년 단임의 우리나라는 임기 초 1~2년 동안 주요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3~5년 차에 관리하여 성과를 내려 한다. 마지막 5년 차에는 레임덕을 방지하고 정권 재창출까지 준비한다.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대통령의 5년도 국정 성과를 내기에는 매우 짧을 수도 있다. 특히나 윤석열 정부의 과제는 어느 대통령보다 난제다. 정책적으로 본다면 부동산 안정과 미래 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하고, 디커플링(Decoupling)으로 나타나는 국제 관계에서 외교 안보도 큰 도전이다. 또한 3대 세습 체제 존속을 위한 핵 개발로 인한 국제 제재와 코로나로 인한 셀프 봉쇄는 북한 체제의 위기를 더 가속시켰다. 위기의 북한은 남북 관계에서 난제이기도 하지만 한반도 평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즉 패러다임의 대전환 시기다. 이러한 가운데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상 국가와 상식이 통하는 사회도 만들려면 5년은 오히려 짧을 것이다.

그렇다고 5년 임기를 탓하면서 새 정부가 공약이나 국민의 기대를 이행하지 않거나 국정과제를 줄여 변경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유는 이번 대선이 1987년 5년 단임제 이후 정당 연임이 실패한 첫 대선이라 야당의 정치적 에너지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만약 임기 초부터 민심을 저버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하락하면 임기 내 국정 동력은 조기에 약화된다.

분명 5년 단임제 임기는 너무 짧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과거 정권 즉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대통령의 5년 임기를 되돌아보면 국제 관계의 일대 전환, 대한민국 정치 패러다임의 변화 등 역사적 전환점이 되는 성과도 많았고, 금융 위기 등 국가 위기 상황과 극복도 있었다. 그렇게 보면 결코 5년이라는 기간은 짧은 기간이 아니다.

5년 임기는 자연의 시간 개념으로 본다면 모든 정부에 똑같다. 그러나 그 5년은 임기를 어떻게 운용·관리하느냐에 따라 정부마다 달라질 수 있다. 그럼 5년 임기를 길게 가져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효율적·체계적 국정 운영 계획이다. 그러려면 반드시 참고해야 할 것이 역대 대통령의 국정이다. 역대 정권의 정책 우선순위와 시기별 운용 계획 및 성과를 분석하면 분명 5년 임기 기간 내 성공적 국정 성과를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기 중에 새롭게 발생하는 과제나 위기 관리도 더 잘 해 나갈 것이다. 특히나 과거 정권과의 부정이나 단절보다는 발전적 계승이란 관점에서 보면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다음 5년 임기를 길게 가져가는 두 번째 방법은 협치다. 협치는 다시 말해 야당·국민과의 관계(rapport)로 특히 임기 초에 중요하다. 과거에는 대선에 패배한 야당은 신정부에 대해 임기초 1~2년 동안은 극한 대립보다는 비판적 관망으로 여야 간 나름 암묵적 허니문 기간이 있었다. 이는 대선 패배 인정과 함께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에 대한 배려이며, 정권 발목 잡기 역풍에 대한 우려였다. 그나마 여론의 눈치를 본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 여야 간 허니문 기간이 사라지면서 정권 초부터 극한 대립을 했다. 갈수록 신정부가 야당과 협치 즉 허니문이 어려워졌다. 그러다 보니 신정부는 국민과의 허니문 기간이 더 중요해지는데 이는 임기 초 대통령 국정 평가로 나타난다. 만약 신정부가 민심에 기반 한 국정 운영을 할 경우, 국민의 힘이 실릴 것이다. 이는 신정부와 국민 간의 허니문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여소야대의 몸집만 믿고 야당이 국정 발목 잡기를 한다면 그 결과는 다음 총선에서 국민이 판단한다. 바로 현명한 대통령은 국민을 지렛대로 5년을 8년같이 사용하는 대통령일 것이며, 현명하지 못한 대통령은 국민에 맞서며 5년을 4년 아니 1~2년과 같이 사용할 것이다.

정권 출범 직후 5월 14~16일 쿠키뉴스-한길리서치의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50.3%였다. 다른 조사기관 국정 수행 조사도 비슷하다. 인수위 초기보다는 소폭 상승했다고는 하지만 1987년 이후 출범한 역대 단임 정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달리 말해 신정부와 국민의 허니문으로 보기에는 다소 낮다. 이로 인해 현 정부의 앞길이 험난할 수도 있다. 이를 극복하는 것은 민심뿐이며, 민심을 이기는 야당은 없다. 따라서 현 정부는 야당과 협치가 잘 안될 경우 민심을 얻는 것이 국정을 성공으로 이끄는 길이 될 것이다.

종교칼럼

콩과 콩깍지

김원명
광주원음방송 교무

요즘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을 경험하면서 새삼 '삼국지' 조식 편에 나오는 이야기가 생각난다. 조조가 죽은 후 대권을 차지한 조비는 그간 아버지의 아낌을 받던 조식이 자기 자리를 넘보지 않을까 염려하게 된다. 그는 계책을 꾸며 조식을 불러들인 후 문죄하기를 "아버님께서 생전에 너를 사랑하셨던 것은 너의 뛰어난 문장 때문인데 요즈음 들으니 그 글들은 네가 지은 것이 아니라 하니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아버님을 속인 것일 뿐 아니라 천하 백성을 속인 일이니 그 죄를 면치 못하리라"고 경고했다. 또한 그 진위를 알기 위하여 시제(時題)를 줄 터이니 사람을 시켜 일곱 걸음을 옮기기 전에 시를 지으라 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일곱 걸음이 떨어지자 조식이 입을 열어 시를 읊었다.

"콩을 삶는데 콩깍지로 불을 때니(煮豆燃豆基)/ 콩은 솥 속에서 슬피도 우는구나(豆在釜中泣)/ 본래 한 뿌리에서 나왔거늘(本是同根生)/ 어찌 들볶기를 이렇게 급하게도 하는 고(相煎何太急)"

한 어머니 배에서 태어나 서로를 해치려 함이 마치 콩과 콩깍지 같음을 비유한 이 시에 조비도 부끄러움을 느끼고 조식을 제거할 생각을 거두었다는 이야기다. 형의 폐부를 찌르고 스스로의 목숨을 구한 이 시를 일곱 걸음에 지었다 하여 칠보시(七步時)라 하기도 한다. 남과 북이 총부리를 겨누는 아픔도 아픔이거니와 강경 진압과 결사 투쟁이 맞선 가운데 쫓고 쫓기는 현장은 마치 전쟁 마당 같아 살벌함마저 느끼게 되고, 조식이 말한 콩과 콩깍지의 관계가 생각나기도 한다. 통일도 되어야 하고, 더 성숙한 민주화도 되어야 한다. 그래서 당연히 통일을 가로막는 갖가지 장애 요소나 반민주적 요소들을 제거해야 한다.

그러나 그 과제들을 해결해 가는 과정이 보다 멀리 보고 깊게 생각하며 전체를 살려내는 대승적 행동이 되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절실하다. 이 세상의 모든 주의나 주장은 절대적일 수는 없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설한 법마저도 하나의 떼배라 하시고 강을 건너면 배를 버리라고 가르치셨다. 옳고 그름을 판별함은 마땅하나 거기에 집착하면 참으로 옳은 것을 잃게 되는 수가 많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선이 좋은 것이나 작은 선에 얽매이면 큰 선을 방해하고, 지혜가 좋은 것이나 작은 지혜에 얽매이면 큰 지혜를 방해한다"고 가르쳐 주셨다. 자기 생각이나 판단에 집착하여 상대를 부정하다 보면 끝내 서로가 적이 되고 마침내 전체적인 생명마저 고갈시켜 마치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불태우는 꼴이 되고 만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현실이란 항상 여러 모순 속에 엉켜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며 양심을 지켜나가는 일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책무여야 함은 마땅하다. 그러나 파사현정(破邪顯正)의 과정이 항상 근원적 동질성에 바탕하고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며 상대에 대한 미움을 넘어 전체를 살리고 이끌려는 대동의 길이어야 한다.

정산종사께서는 이 세상 모든 주의가 같은 원리에 바탕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같은 목적 속에 일하는 같은 일꾼임을 깨우쳐 주셨다.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도, 체제를 수호하려는 사람들도, 이에 저항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하나의 목적 속에 같은 일을 하는 한 일꾼임을 알아야 한다. 이데올로기의 마지막 제물로 남은 이 땅에 얽히고설킨 갖가지 고리들을 슬기롭게 풀어내어 마침내 세계사의 바른 흐름으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아니겠는가?

'6·1 선거공감' 기고 〈5〉

동시 지방선거의 특성과 과제

강순후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포함해 총 4132명을 뽑는 선거에 전국에서 7616명이 출마했다. 평균 경쟁률은 1.8대 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무투표 당선자 수도 494명에 달해 최근 20년 새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 지방선거는 일단 선거의 수가 많고, 정당 공천을 하지 않는 교육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데다 선거에 따라 선거구제가 다르게 적용되는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동시 지방선거의 특성과 유의할 점, 고려 사항 등을 미리 확인해 보고 지방선거 제도의 발전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교육감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정당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교육감 후보자는 비당원이어야 하고,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등 정치인은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정당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투표용지에 기호도 표시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 게재 순위에 따른 유불리마저 희석시키기 위해서 일정 단위로 투표용지의 유형도 달리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적 장치들을 감안한다면 유권자들은 교육감을 선택할 때 정당이 공천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선 염두에 두어야 하며, 투표용지에도 정확히 기표하였는지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정치 개혁의 과제로 정치 세력의 다원화를 통한 협치 기반 조성, 투표 결과와 의석 배분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이나 연동형 비례제 확대 등이 수차례 제안되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무투표 당선자 수가 4년 전에 비해 다섯 배가 넘는 494명으로 급증하였다. 지난 대선에서 형성된 양당 경쟁 구도, 무소속 출마자 감소, 지역 기반 정당 문화 등이 이유로 지목된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투표 결과와 의석 배분 간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국 11개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세 명 내지 다섯 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번 시범 도입은 정당의 참여와 유권자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비례대표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다.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전국 62개 선거구에서 무투표가 발생하였다. 대도시를 제외한다면 정원이 1~2석밖에 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 할 수 있고, 의석 배분 기준도 국회의원 선거보다 엄격하여 다양한 정치 세력의 제도권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의 경쟁성·비례성을 높이고 유권자의 정당·후보자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대표제, 선거구제, 비례대표제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선거 공약은 후보자와 유권자간 공적인 약속으로서 후보자 선택의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은 물론 당선된 후에는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 책임 정치를 강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과 선거 공약을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정책 공약 마당'에서 정당의 10대 정책, 단체장 후보자의 5대 공약과 모든 후보자의 선거 공보를 확인하는 것이다. 다만,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무투표 당선자의 선거운동을 중지하도록 하고 있어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 공약을 유권자에게 알리거나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선거운동은 중지시키더라도 선거 공약은 유권자에게 공표하게 하여 추후 이행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고 본다.

어제부터 거리 유세, 방송 토론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유권자께서는 정당·후보자의 정책과 선거 공약을 관심 있게 살펴보고 최선의 선택을 하였으면 한다.

社說

5·18 헌법 수록 위해 '헌정특위'부터 구성해야

5·18민주화운동 제42주년을 맞아 여야가 한 목소리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향후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제 기념식 참석을 위해 광주에 총집결한 여야는 일단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추가하기 위한 개헌 논의에 공감대를 이루는 분위기다. 대선 후보 시절 수차례 헌법 수록을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도 "5·18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며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 강령에는 이미 '5·18 등 민주화운동 정신을 이어간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동선대위원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5·18 정신 헌법 수록에 대해 "당 의견을 수렴해 볼 때가 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 5·18 정신을 전문에 포함시킨 헌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적극적이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광주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광주항쟁의 정신과 가치를 기리는 일은 정파를 초월해 우리 모두의 책무"라며 "하반기 원 구성 때 '헌법개정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를 구성해 헌법 개정 논의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이 그제 기념사에서 애초 예상을 깨고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 여권 내 논의 동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지난 1987년 9차 헌법 개정 당시 논의됐다가 무산되면서 35년간 광주시민의 숙원으로 남아 있다. 5·18기념재단이 지난달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9.1%가 '헌법 전문 수록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정치권과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만큼 여야는 헌정특위부터 조기에 구성해 5·18 정신을 헌법에 새겨 넣는 일을 최대한 서둘러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 변화' 지역 공약 실천으로 이어지길

여당인 국민의힘이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보여준 새로운 행보가 시선을 모으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엊그제 당 지도부를 비롯한 소속 의원 100명과 함께 5·18 기념식에 참석했다. 보수 정권 집권기에 여당 의원 대부분이 5·18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이례적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발 더 나아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손을 맞잡고 제창했다. 이 대표는 "당 차원에서 다 같이 제창하자고 방침을 정해서 한 것이기에 의미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호남에 공을 들여왔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5·18 묘역 '무릎 사죄'에 이은 당 지도부의 잇따른 5·18 묘역 참배와 광주·전남 방문 등을 통해서다. 이번 5·18 기념식에서 보여준 모습도 그 연장선상이다. 이 대표는 언론과 만나 "앞으로 저희의 이 변화가 절대 퇴행하지 않는 불가역적인 그런 변화였으면 좋겠다"는 의미심장한 말도 남겼다. 다시는 광주와 5월의 명예를 실추하고 신뢰를 저버리는 일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읽힌다.

보수 여당은 그동안 광주·전남에 진성성을 믿어 달라고 숱하게 호소했지만 집권 후에는 표변해 온 게 사실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그 행태는 더 강화되고 굳어졌다. 하지만 최근 모습은 과거와 다르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새 정부와 여당은 이제 호남 구애의 진정성을 정책의 실천으로 증명해야 할 때다. 광주·전남의 현안임에도 국정과제에서 누락된 송정역 복합 역사 건립, 국립 의과대학 신설,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등을 다시 챙겨야 한다. 과거 보수 여당의 지역 편중 정책 때문에 고통받은 지역민의 여망이 담긴 지역 발전 정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이를 통해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보여 주길 기대한다.

無等鼓

득점왕

"축구는 많은 골이 터져야 재미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흥미는 긴장감에서 나오고 경기가 주는 긴장감은 골을 넣기 어렵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수 만 관중의 웅성거림, 슛이 골대 옆을 살짝 비켜갈 때마다 머리를 감싸 쥐며 터져 나오는 비명과 환호 소리, 결정적인 공을 골키퍼가 쳐내거나 확실하다고 믿은 슛이 최후의 순간 크로스바나 골포스트를 강타할 때의 탄성과 심호흡이 없다면 무슨 재미로 축구를 볼까.

그렇지만 축구는 골의 미학이다. 0 대 0 경기를 좋아할 사람은 전략가들일 뿐. 골이 없으면 승리도 없고 결국 관중도 없다. 관중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코어는 3 대 2라고 한다. 골이 많이 터지면서 간발의 차로 승패가 갈려야 긴장감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물론 4 대 3이나 5 대 4의 경기가 나올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고 특별한 사건이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이번 시즌 20개 팀에서 총 1023골이 터졌다. 경기당 평균 1.4골. 토트넘은 37경기에 64골을 기록했는데 손흥민은 전체의 33%인 21골을 혼자 넣었다. 득점 선두 리버풀의 살라와는 단 한 골 차. 특히 페널티킥 골이 살라는 다섯 골이고 손흥민은 한 골도 없이 모두 필드골이라는 점에서 손흥민의 활약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다.

프리미어리그는 이제 마지막 38라운드를 남겨 놓고 있다. 손흥민이 노리치전에서 골을 넣으면 득점왕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리그 최하위 노리치는 이번 시즌 79점으로 최다 실점을 한 팀이고, 경쟁자 살라는 햄스트링 부상에 유럽 챔피언스리그 결승을 앞두고 있어 리그 마지막 경기에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다. 손흥민에게는 더 없는 기회다.

프리미어리그의 득점왕은 공동 수상도 가능하다. 한 골만 더 넣으면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르고 시즌 MVP에도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다. 또한 유럽 4대 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한 아시아 최초의 선수가 된다. 푸스카스상을 받은 번리전 72m 드리블 때처럼, 러시아월드컵 독일전에서 골을 넣으려 달려갈 때처럼 한국 팬들은 잔뜩 긴장하며 손흥민의 23일 0시 프리미어리그 시즌 마지막 경기를 기다리고 있다.

/유제관 편집담당 1국장 jkyou@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전남본부 220-0680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21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